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바꿨더니...

매출·수출 '쑥쑥'... 고용증대 효과

함초 김 전문 제조업체인 ㈜다사랑(대표 양동홍)은 ㈜디앤에스(대표 최성주)와 손잡고 기존제품의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을 개선한 후 디자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대형마트에 함초김 납품 계약에 이어 일본, 미국, 두바이에 수출도 앞두고 있다. 직원도 5명 정도 늘릴 예정이다.

㈜디자인바이(대표 최태욱)와 공동으로 전자자동차 충전기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프로젝트리아㈜(대표 류신호)는 최근 포스코R&D센터에서 제품 품평회를 마치고 올 하반기 포스코 계열사와 자동차 업계에 납품을 목표로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

디자인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및 고용, 수출 증대에 효과적임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박유복)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서남권 디자인 거점 활성화사업'을 통해 ㈜다사랑 등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매출·수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와 전남·북 지역 중소기업 50여개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디자인 개발과정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디자인 결과물의 품질을 높였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디자인을 탈바꿈한 제품들은 국내외 시장의 뜨



함초 김

전기차 충전기

광주디자인센터, 50개社 디자인 컨설팅 지원 성과
함초 김 '다사랑' 대형마트 납품, 美·日·두바이 수출
전기차 충전기 '디자인바이' 하반기 대기업 납품

거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을 앞세워 OEM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으로 출시를 서두르는 기업도 있다. 보일러 제조업체인 ㈜씨엔티(대표 유시봉)는 농산물건조기 제품 디자인을 개발, 자사 브랜드로 시장에 내놓았다. 천연 화장품 제조업체인 네추럴에이드(대표 정해운)도 새로운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출시 이어 미국, 유럽, 중국지역 바이어와 수출 상담에 분주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TAMM' 실리온 주걱을 선보였던 광주금형(대표 김기열)은 패키지 디자인을 완료하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 MD, 주방업체 등과 납품을 협의하는 등 다달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박유복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디자인 투자는 일반 R&D에 비해 3배 수준의 매출 증대효과가 있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약 2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디자인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므로 디자인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서남권 디자인거점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차 '디자인경영' 교육과 자동차 튜닝제품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효성 1분기 영업이익 2223억원...사상 최대

매출 2조8131억원

효성은 올해 1분기에 매출 2조8131억원, 영업이익 2223억원을 올렸다고 26일 자로 공시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 1분기(매출 2조7929억원, 영업이익 2222억원)보다 0.04%, 0.7% 증가한 수준이다.

꾸준히 좋은 실적을 유지해 온 섬유뿐만 아니라 산업 자재, 중공업, 건설 등 주요 사업 부문이 고르게 호조를 보였다. 사업별로 보면 섬유 부문은 글로벌 시장의 침체와 공급 과잉에도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고객 중심의 마케팅,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것으로 효성은 2분기에 제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

이다. 산업 자재 부문은 자동차 시장의 회복으로 시장점유율 1위인 폴리에스터 타이어코트와 함께 시트벨트용 원사, 자동차용 매트 등 자동차 소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2분기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화학 부문에서는 PP/DH 사업이 시장 다변화를 통해 신규 고객을 발굴, 이익의 장충하고 있다. NF 3(삼불화질소) 사업도 중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 수요 증가로 증설분 가동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

중공업 부문은 고수익 제품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원가혁신 활동과 환율 영향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현장 소통 곡성공장 경영설명회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27일 광주·곡성공장 현장사원을 대상으로 2016년 경영설명회를 열고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경영실적을 돌아보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경영 목표를 사원들과 공유해 회사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사 신뢰와 협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경영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영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경영실적 급감과 시장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이한섭 사장과 경영진이 지난 25일부터 8차례에 걸쳐 직접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영진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경영실적 설명회와 회사 경쟁력 분석, 경쟁사 동향과 실적비교 등으로 회사가 처한 경영환경을 알리고 사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5.40 (+1.06)
- ▲ 금리 (국고채 3년) 1.46% (+0.01)
- ▼ 코스닥 699.52 (-1.12)
- ▼ 환율 (USD) 1148.30원 (-2.70)

이코노 & 비즈피플

심학섭 (주)진행워터웨이 대표

“깨끗한 우리 수돗물 전세계 수출이 꿈”

수도관 청소 '스케일버스터'
미네랄 정수기 '그린비' 개발
20년 외길 '좋은물 전도사'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만 수도관 부식이 수돗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배관만 바뀌어도 수돗물이 '생명의 물'로 부활한다고 강조하는 심학섭(50) (주)진행워터웨이 대표는 2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가이기에 앞서 '좋은물 전도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2001년 설립한 (주)진행워터웨이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물(水)처리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해온 것도 이러한 의지가 자랑분이 됐다. 진행워터웨이는 친환경기술로 수도관에 끼어 있는 녹과 물때, 각종 세균 등을 없애는 아연이온수발생기 '스케일버스터'를 비롯해 물속의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미네랄은 살려주는 천연미네랄 정수기 '그린비' 등 생활건강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특히 스케일버스터는 수도관 내부의 녹이나 스케일, 부식을 없애고 면역력 강화와 영양소인 아연을 물 성분에 보충해 주는 물리적 '이온화 수처리기'다. 배관관리의 세계적 특기기술로 독일에서 100대 발명품으로 선정된 이 제품은

세계 63개국의 특허를 받은 세계 최고의 물리적 물(水)처리 제품이다.

심 대표가 물 연구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20년 전 독일 유학생 시절이었다. 그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독일 국민들을 보고 150여 년의 오랜 시간 동안 독일의 수돗물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살아 있는 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자원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의 정화력에 의지한 강변여과수를 취수해서 미네랄이 풍부한 살아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독일정부의 상수도 정책의 결과였다.

현지에서 찾은 사업박람회장에서 녹

물 제거 기술을 목격한 심 대표는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물속에 화학물질을 투입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는 이른바 '물리적 수처리'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심 대표가 독일, 영국의 기술진과 함께 수도배관의 녹을 제거하는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스케일버스터를 개발했다. 1997년 독일에 법인을 세웠고, 2000년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좋은 물'에 대한 연구는 정수기 개발로 이어졌다. 심 대표는 깨끗할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천연 미네랄 강화 정수기 그린비다.

심 대표는 미네랄이 없는 물은 '몸에 해로운 물'이라고 단정 짓는다. 40년 가까이 전국의 장수촌을 찾아다니며 좋은 물에 대해 연구한 이덕수 경원대 명예교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진행워터웨이 그린 비는 구례군에 있는 장수촌물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수돗물을 프랑스 에비앙처럼 전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꿈을 가진 심 대표는 앞으로도 '안전한 물' '건강한 물' 만들기와 알리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심 대표는 "자세한 라인업을 다 갖추고 항상 좋은 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의 수확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책임의식을 갖고 개인보다는 사회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광주세관, 성실무역업체 2곳에 AEO 인증서



지난 26일 '201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된 지역 2개 성실무역업체 관계자들이 공인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지난 26일 '201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된 관내 2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 참석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진남합동관세사무소 등 2개 업체는 기존 AEO 공인업체로서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 및 종합심사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AEO 최고등급인 AAA로 등급유지(AAA→AAA) 재공인되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혁명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헤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 ~ 80%

신상품 3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